

	보 도 자 료	
	작성	한반도·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(044-960-0271)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광복 실장(02-6746-7365)
	배포	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(044-960-0443) 홍보출판팀 박순업 팀장(044-960-0428)
보도일시	■ 즉시 보도 가능	

“스마트도시 해외진출 성과제고 방안: 필리핀 클락 사업사례를 중심으로”
국토研, 워킹페이퍼(WP 22-14호) 발간

- 국토연구원(원장 강현수) 방설아 부연구위원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광복 실장은 워킹페이퍼 『스마트도시 해외진출 성과제고 방안: 필리핀 클락 사업사례를 중심으로』에서 스마트도시 개념과 성과 정의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, 우리나라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성과제고 방안을 제안했다.
 - 이를 위해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국내 정책과 이행구조, 예산과 추진사업 등 객관적 현황을 분석하고, 현장 전문가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현황의 쟁점과 성과 증진 방안을 논의함
 - 또한 ‘K-City 네트워크’사업 중 필리핀 클락의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, 사업 단위에서 성과 도출을 위한 세부 여건을 분석함

- 우리 정부는 스마트도시 해외 진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확대와 상대국의 도시개발에 기여하는 **고부가 패키지형 전략프로그램**을 개발하려 하지만, 스마트도시 지원 프로그램 간의 분절화로 인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적 성과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.
 -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프로그램인 K-City 네트워크는 연간 약 4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지만, 기재부, 국토교통부, KOICA 등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(ODA)의 무상원조 연간예산은 약 70억 원 수준으로,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의 ODA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임
 - 그러나 스마트도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과 제도가 정작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의 많은 예산 부분을 차지하는 ODA의 스마트도시 추진에는 적절히 융합·적용되지 않고 있음

- 해외 스마트도시 도시개발형 사업의 실무 관계자의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, 사업추진 장애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으로 ① 해외 스마트도시의 정의와 기술수준 불분명 ② 장기 도시사업의 성과관리 어려움 ③ 공공의 역할 확대와 ODA 연계 필요성 ④ 사업 단위에서의 성과제고 노하우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.
 - 우리나라와 스마트도시 협력을 요구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도시로 스마트도시 개발 수요와 요구 수준이 한국의 스마트도시와는 다르므로 우리나라의 ‘스마트한 기술’ 수준을 개발도상국의 스마트도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
 - 도시개발형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경우, 규모가 크고 다단계의 상·하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음
 - 단순히 해외 진출, 도시 개발적 관점을 넘어 ‘탄소배출’ 등 글로벌 이슈와 연계한 스마트도시 유형 개발, 국제기구 연계형 사업 등 다각적 방법론 적용 필요
 - 개별사업 단위에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, 사업 초기 단계에 상대 정부의 개발계획 보유 여부 확인, 사업 부지의 적정규모 산정, 다국가 협력전략 등 검토 필요

- K-City 네트워크의 우수사업 사례로 추진 중인 ‘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’ 사업사례 분석을 통해 ① 한국 정부 지원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상대 정부의 신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② 스마트 도시개발에서 다단계에 걸친 계획수립 및 세부화·고도화는 필수적임 ③ 현실적인 사업 규모 설정 및 단계별 개발 확대 계획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파악했다.
 - 해당 지역의 상위 개발계획 보유, 우리 공공기관·기업의 사전 네트워킹 활동, 현실적 추진이 가능한 적정 사업 규모 협상이 본 사업이 갖는 차별적 성과 요인임
 - 또한 클락 자유무역지대 스마트시티는 고도의 스마트도시 기술 수준을 적용하기보다 도시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스마트 기반시설을 현지 수준에 맞추고, 사업개발 단계에 따라 확장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도록 계획함
 - 아울러 K-City 네트워크 사업의 마스터플랜 결과를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, 해당 지역 내 ODA 사업 지원을 통해 도시정부의 협력을 유도하고 후속사업의 추진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임

-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이광복 실장은 우리나라의 해외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① ‘글로벌 K-스마트도시’의 용어와 범주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, ② 해외스마트도시의 개발성과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. 또한 ③ ODA를 통한 스마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략 일원화 및 통합프로그램 확대와 ④ 스마트도시를 ‘스마트한 도시계획’으로 인식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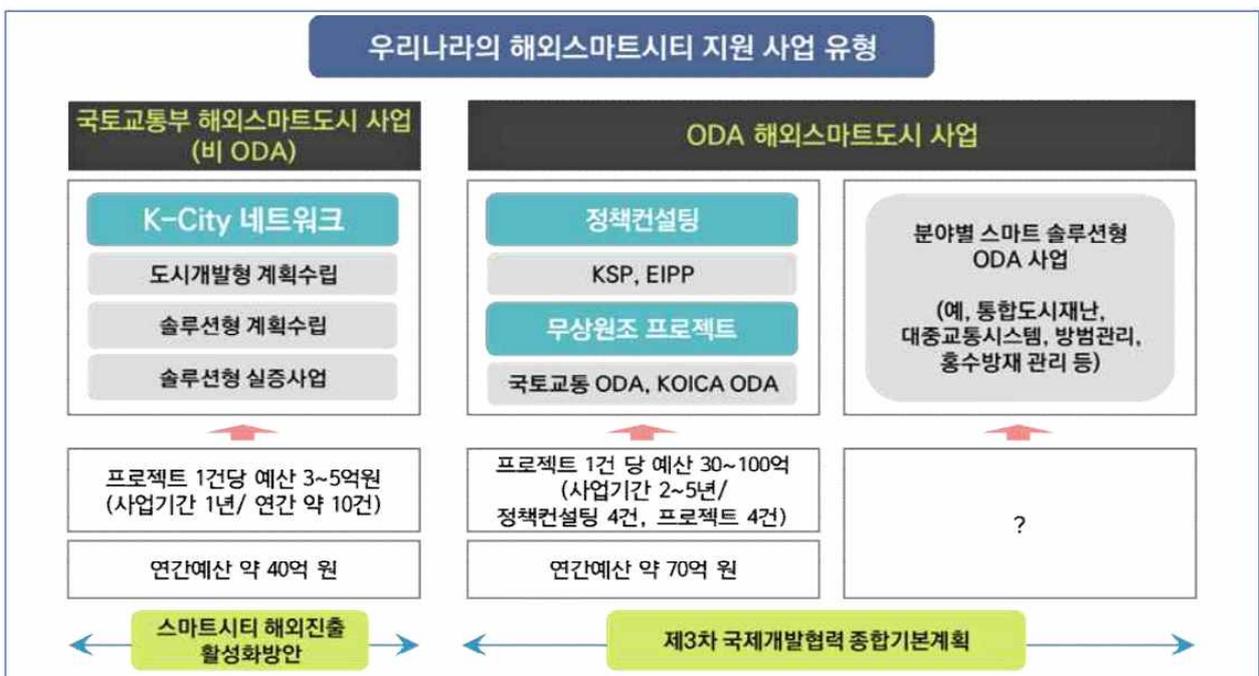
- 국내 스마트도시의 기술수준 및 추진전략과 다른, ‘글로벌 K-스마트도시’에 적합한 용어와 범주 통일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 ‘해외 스마트도시’ 사업 분류체계의 범부처 표준화와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의 전략이 필요함
- 사업이 수주 또는 계약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 상당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, 사업 주요 단계별 마일스톤(milestone)에 따라 성과 단위를 세분화하여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, 그에 따른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함
- ODA를 통한 해외 스마트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△사업 단계별 정부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△범부처 통합프로그램 공모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제시함
- ‘결과로 보여지는 스마트도시의 외형’보다 ‘스마트도시 개발의 경험과 과정’이 글로벌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식임을 인지하고 스마트 도시계획 강화 필요
- 마지막으로 해외수주 실적으로 측정되는 성과의 조급함보다는 우리나라 및 해외 도시에 성공적 모범사례로 꼽히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‘스마트한’ 도시개발이 무엇인지 의미를 되새기고, 스마트도시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전략 재정비를 준비해야 할 것임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(☎044-960-04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

그림 4 우리나라의 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추진현황



출처: 저자 작성.